

국립광주과학관 '찾아가는 과학관'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관장직무대리 전태호·이하 과학관)은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후원회장 김홍균·남산산업 회장)와 '2023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을 운영한다. <사진> 찾아가는 과학관 사업은 과학문화시설이 취약한 지역의 학생과 주민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장성 동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개월에 걸쳐 장성, 구례, 임실 등 6개 지역 6개교 2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국립광주과학관의 이동식 과학차량(루체리움 과학스쿨)과 이동식 천체관측차량(루체리움 스타카)이 학교를 찾아가는 이동식 과학차량의 과학전시물 관람·천체관측·드론체험·블록코딩 교육 등이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후원회는 2016년부터 과학꿈나무 초청사업 '사이언스 캠프', '휴관일 초청행사'를 운영해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

전남대 5·18연구소 '5·18과 평화' 간담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소장 민병로·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5·18과 평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주 시민사회 활동가 30여명이 참석해 최근 평화운동의 동향과 국제적 위기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5·18민주화운동과 평화를 시민 참여적 관점에서 조명했다. 라이너 브라운 국제평화국상임이사는 "현

정세와 평화운동, 그리고 공동안보론'이라는 기초발제를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과 구조적 폭력에 대해 시민사회의 적극적 저항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는 1945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인 만큼 공동의 미래를 위해 평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병로 5·18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콜로키움과 간담회 등 현장 중심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윤한결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 우승

한국인 지휘자 윤한결(29·오른쪽)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 심사위원단은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대강당에서 이 대회 우승자로 윤한결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윤한결의 지휘는 카리스마 있고 준비가 철저해 있으며 기술적으로 뛰어났다"면서 "그의 지휘를 보면 음악의 흥내 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게 한다는 점을 느끼게 해 줬다"고 평가했다. 헤르베르크 폰 카라얀 협회와 오스트리아의 세계적 클래식 축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마련한 이 콩쿠르는 세계 클래식계가 인정하는 젊은 지휘자들의 등용문이다. 윤한결은 이날 대회 결선 무대에서 멘델스존의 교향곡 3번 가단조 '스코틀랜드' 등 4곡을 지휘했다. 윤한결은 서울예고 재학 중 독일로 건너가 뮌헨 음대를 졸업했다. 2019년 그슈타트 메뉴인 페스티벌·아카데미에서 지휘 부문 1등상인 네메 예르비상을 받았다. 제네바 대극장과 뉘른베르크 국립극장에서 부지휘자로, 메클렌부르크 주립극장에서 지휘자로서 활동했다. /연합뉴스

항우연,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우주탐사 심포지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이 7일 '다누리 발사 1주년 기념식 및 우주탐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광주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송원여상 진로탐색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최근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이해 및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It's me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광주여대 제공>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문화재단 협약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오른쪽)은 최근 지역 문화예술 협력의 위해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과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제공>

TV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0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금이야 옥이야(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로컬 콘텐츠 페스타 토크콘서트 박우량 신안군수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보보보 좋아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KBS 뉴스특보 00 동행(재)	00 가슴이 뵈네(재)	15 헬로킴지 과학교실 30 주니토니아가기(재) 45 팬티히어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5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5 MBC 네트워킹특선 <시스터즈 가든>	00 SBS 12뉴스 25 만방 네트워크 뉴스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
13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0 꽃길 영화가 좋다 베스트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3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14	00 KBS 뉴스 10 성로봉사의 비밀(재)			00 뉴스브리핑
15	00 TV쇼 진품명품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내 비밀친구 험찌(재)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16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17	00 KBS 뉴스 5 10 특별생방송 여기는 새만금 챔버리(4회)	00 생존게임 코드레드(재)	10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KBC뉴스와이드
18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분방을 보자	45 닥터 365 50 생방송 투데이
19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우아한 제국	05 하늘의 인연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20	30 일일연속극 금이야 옥이야	30 슈퍼맨이 돌아왔다		30 KBC 8 뉴스
21	00 KBS 뉴스 9	45 가슴이 뵈네	0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22	00 시사기획 창 50 KBS 뉴스라인W	55 더 라이브	00 심야괴담회	20 강심장리그
23	00 사랑의 가족(재) 55 생활의 발견	20 세컨 하우스 2(재)	45 TV예술무대	00 열린예술무대 뒤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30 한국기행	17:25 만스타맨션(재)
05:30 클래스 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그린조끼 구조대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그와 블랙캣
07:00 빅블루	12:10 귀하신 몸	18:40 EBS 뉴스
07:15 하프와 친구들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돌레길
07:30 띠띠뽀 띠띠뽀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45 뽕뽕뽕 뽕뽕뽕	14:30 EBS 평생학교 3교시	19:50 극한직업
08:00 당동맹 유치원	15:15 EBS 평생학교 4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20 출동! 슈퍼윙스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21:30 한국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아	16:10 똑똑 문해력 박사	여름 신선별곡 2부 그 남자의 은둔 낙원
08:50 만스타맨션	16:40 당동맹 유치원(재)	21:55 EBS 다크프라임
09:05 고고다노노 우리동네공룡	17:00 페퍼 피그	22:50 건축탐구 - 집
09:20 인간과 바다	17:10 오우오우 내 새끼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10 한국의 돌레길	17:20 티타와 쿠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음 6월 22일 戊戌)

<p>36년생 마음에는 들겠지만 그것을 수용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48년생 한번 빠져들면 헤어지지 못 하리라. 60년생 기쁨은 한순간일 뿐인데 아쉬움은 많이 남으리라. 72년생 주저하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아 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84년생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아예 만들지 마라. 96년생 예방하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48, 62</p>	<p>42년생 기본 방향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54년생 차분하게 생각하고 명확하게 실행하느냐의 여부가 관건이다. 66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78년생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절실한 문제가 보인다. 90년생 회복할 수 있다. 02년생 광활한 만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79</p>
<p>37년생 누적된 모순이 병폐로 드러나리라. 49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61년생 흔들림 없는 소신으로 추상같이 결단해야 한다. 73년생 어려움은 있으나 머지않아 해결될 수이니 걱정하지 말고 임하라. 85년생 반드시 고쳐야만 발전은 도모할 수 있다. 97년생 제의를 받거나 권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 46, 65</p>	<p>43년생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판별할 일이다. 55년생 밤심했다가는 악재들이 겹쳐올 수도 있다. 67년생 무의식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자. 79년생 자세히 살펴본다면 미처 헤아리지 못한 허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91년생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절실하다. 03년생 직접 실행하는 것이 백번 낫다. 행운의 숫자 : 02, 71</p>
<p>38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50년생 뻔히 다 알고 있으면서도 당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얼마나 깊어 다루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74년생 무리한 진행은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86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98년생 아예 기대하지 않는 것이 속이라도 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14, 81</p>	<p>44년생 부수적인 것은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 56년생 도움과 관심이 모아져서 길사가 꽃핀다. 68년생 끊임없는 관심이 지속되었을 때 실행력을 최소화하느니라. 80년생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잘 살펴라. 92년생 시초에 바로 잡아야 궁극에까지 수월할 것이다. 04년생 기본적인 개념 파악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6, 60</p>
<p>39년생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51년생 시종일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성취할 가능성이 높다. 63년생 일반적이지 못하다면 어느 누구에게나 쉽게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75년생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 87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옳다. 99년생 실질적인 면을 우선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6, 77</p>	<p>45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바를 목전에 두고 있다. 57년생 비울수록 새롭게 채워짐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객관적이지 않으면 실용성이 없다. 81년생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니 의식할 필요 없다. 93년생 착실하게 정진하면 기필코 성취하게 될 것이다. 05년생 분명하다면 확실히 밀어붙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8, 84</p>
<p>40년생 통례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로우리라. 52년생 요령보다 원칙을 따르는 것이 목적 달성을 더 용이하게 한다. 64년생 흡족한 결과로 인해 즐거우리라. 76년생 대의를 위해서 상대의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88년생 표면 뿐이므로 동요될 필요는 없다. 00년생 대단한 일이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4, 89</p>	<p>34년생 차별화시키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46년생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종국적인 결과는 같다. 58년생 불합리함을 차치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세로다. 70년생 끊임없이 빠져들 수 있으니 분명한 한계를 두자. 82년생 강구한다면 경제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94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56</p>
<p>41년생 직접적이지 않다면 넘어가도 된다. 53년생 충동의 폐해는 의외로 대단할 수 있느니라. 65년생 목적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한 수고로움만 더 할 뿐이다. 77년생 우려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89년생 기대했던 바보다 큰 효과를 보게 된다. 01년생 주된 것을 우선시하고 종된 것에 관심을 둘 수도 있겠다. 행운의 숫자 : 00, 69</p>	<p>35년생 상대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내색하려 한다면 나 숨기려 하지 마라. 47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59년생 즉시 시원스럽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 83년생 썩 좋은 결과라고 보기는 힘들다. 95년생 순서와 방법대로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5, 66</p>